

모의고사 지문 분석

이 감 감

부록

2023학년도 시준5 제7차 이감 국어 모의고사 지문 분석을 수록하였습니다.

행정 행위의 구분과 건축 허가

지문 평가

(가)에서는 행정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행정 행위의 두 종류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초점으로 삼는다면, (나)에서는 '허가'가 어떤 종류의 행정 행위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을 초점으로 삼고 있다. 얼핏 보면 정보량이 많아 보이지만 초점을 분명히 하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Keyword

(가) 사회 - 법학 - 행정 행위

행정 행위, 기속 행위, 재량 행위, 재량권, 부관

(나) 사회 - 법학 - 건축 허가

허가, 건축 허가, 기속 재량 행위, 실서 행정, 인허가 의제, 복리 행정

(가) 문단 1 행정 행위의 위법성 판단

- 1) 행정 기관이 행정 법규를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를 **행정 행위**라 한다. 이는 행정권이라는 권한의 행사여서, 그로 인해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행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데,
 - ▶ '행정 행위'에 대한 압축적인 설명이다. 어떤 행정 행위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그것의 위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따지게 된다[→ 물론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소송' 제기가 없었다면 위법성에 대한 판단도 없다].
- 2) 법원은 그 판단을 위해 먼저 해당 행정 행위가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 ▶ 지문의 초점이 '행정 행위의 종류'에 대한 판단으로 좁혀지고 있다. 행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가) 문단 2 기속 행위와 재량 행위

- 1) **기속 행위**는 행정권 행사의 내용이 법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행위이고,
 - ▶ 먼저 '기속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일단 그대로 이해하자. 기속 행위가 재량 행위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2) **재량 행위**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위이다. **재량권**은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이나 태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 ▶ 이어서 '재량 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기속 행위는 재량권이 없어서 기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행위, 재량 행위는 재량권이 있어서 일종의 '선택권'이 있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다.
- 3) 어떤 행정 행위가 **기속 행위**인 것으로 확정되면 행사에 **잘못**이 있을 때에 그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므로 법원은 **행정 행위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 ▶ 피해를 입은 국민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면, 재량권이 없는 '기속 행위'의 경우에는 잘못이 있으면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 즉 그 행위가 무효가 된다.

기속 행위 행사에 잘못 ⇨ 위법한 행위 ⇨ 무효

- 4) 이와 달리 해당 행위가 **재량 행위**인 것으로 확정되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일탈 또는 남용된 것이 아닌 한, 재량을 그르쳐서, 즉 재

량에 함목적성이 결여되어 공익에 반하는 경우라도 단지 부당한 것일 뿐 위법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맥락 짚기 ▶ 마찬가지로 '기속 행위'의 경우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잘못이 있을 때에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분하여야 한다.

▶ 반면 재량권이 있는 재량 행위는 문제가 있어도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당한 것'이 될 뿐이다.

▶ '위법성'과 '부당성'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량 행위의 '재량'에 함목적성이 결여되어 공익에 반하는 경우는 부당하지만 위법하지는 않다. 그런데 더 나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일탈 또는 남용된 것이면 위법한 행위가 된다[→ 무효가 된다].

주목 ▶ '재량권의 범위 안에서의 행정 행위'라면 부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유효한 것이다.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은 잘못 ⇨ 부당한 행위[→ 위법 X]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잘못 ⇨ 위법한 행위 ⇨ 무효

(가) 문단 3 행정 행위의 종류 판단

- 1) 법원은 행정 행위의 종류를 판단할 때 **법률 규정**을 일차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원칙적으로는 법규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행위는 재량 행위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행위는 기속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다.
 - ▶ '법원'이 행정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먼저 그 행위가 기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속 행위라면 잘못이 있을 때에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어 무효가 되겠지만, 재량 행위라면 이것저것 따져야 한다[문단 2-4].
 - ▶ 행정 행위는 기본적으로 행정 법규의 집행이다[문단-1]]. 따라서 일차적인 기준은 법률 규정의 표현에 달려 있다. 대개 선택지를 열어 두는 포괄적 표현은 '재량 행위'로, 선택지를 열어 두지 않는 당위적 표현은 '기속 행위'로 판단하는데.....
- 2) 하지만 예외 사례들이 있을 뿐 아니라 “~한다.”라고 중립적으로 규정된 것도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뿐 아니라 기본권 관련성과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 ▶ 일차적인 기준만으로는 정할 수 없고,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한다. 즉 어느 하나만을 이유로 해당 행위가 기속 행위라고, 혹은 재량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3) 예컨대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일반적으로 재량 행위이지만, 특별한 사정하에 엄한 제재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기속 행위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새로이 권리를 주는 행정 행위는 재량 행위로,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자유권을 회복시키는 행정 행위는 기속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 ▶ 행정 행위의 종류를 판단하는 데에 고려해야 하는 점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예시들이다. 적당히 참고하고 넘어가자.

	기속 행위	재량 행위
재량권	X	O
위법성 판단	행사에 잘못이 있으면 위법성 인정	재량권의 한계에 따라 부당성과 위법성 구분
행정 행위의 종류 판단	법을 규정의 표현, 입법 목적, 입법 취지, 기본권 관련성, 공익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 문단 4 부관의 위법성 여부

1) 한편 행정 소송에서는 부관의 문제가 불거지곤 한다. **부관**은 행정 행위에 덧붙여진 조건이나 제한으로, '효력은 1년 뒤부터 발생한다.'와 같은 것을 말한다.

맥락 짚기 X (가) 지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 뒤 마지막으로 부가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부관'이 기속 행위 및 재량 행위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로 얽혀 있는지 파악하면 된다.

2) 행정 행위가 재량 행위인 경우에는 법적 근거 없이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

▶ '재량 행위'의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한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재량권의 한계를 넘으면 '위법한 행위'가 될 것이다[문단2-4].

3) …… 기속 행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이는 것이 위법이 된다. 다만 행위 요건의 일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그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부관은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 반면 '기속 행위'의 경우 재량권이 없는 만큼 '부관'을 붙이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위법이다[→ 위법한 행위가 되어 무효가 된다.]. 단 예외적으로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부관만이 허용된다.

(나) 문단 1 행정 행위로서의 허가

1) 공익을 위해서는 헌법상의 자유권이 법규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허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그 자유를 회복시켜서 관련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 행위를 말한다.

맥락 짚기 X 통합 지문을 올바르게 독해하기 위해서는 (가)의 핵심 내용을 (나)에 의식적으로 끌고 올 수 있어야 한다.

▶ '허가'는 행정 행위의 일종이므로,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허가'를 기속 행위로 보는지 재량 행위로 보는지 판단해 보자.

2) 학계의 통설에 의하면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 행위이다. 허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권 제한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허가'는 일반적으로 '기속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재량권이 없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계적으로 집행해야만 하는 행정 행위인 것이다.

3) 물론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 허가**의 경우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 즉 **기속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속 재량 행위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량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에서는 사실상 기속 행위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 다만 '허가' 중에서도 '건축 허가'의 경우에는 '기속 재량 행위'라고 본다. 그러나 사실상 '기속 행위'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 이렇게 '허가'의 종류에 대해 관점이 갈리는 것은 행정 행위의 종류를 판단하려면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다[(가)의 문단3-2].

(나) 문단 2 질서 행정의 관점

1) 당시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건축 과정에서나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의 방지를 건축 허가 제도의 주된 목적으로 보는 **질서 행정**의 관점을 반영한다. 그만큼 재량권을 최소한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기속 재량 행위'는 현실에서는 기속 행위와 다르지 않는데, 이는 재량 행위임에도, 그 재량권을 최소한으로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즉 재량권이 아예 없는

기속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 구체적으로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건축 과정에서나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의 방지에 대한 필요]에 한해서만 재량권'을 발휘하여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재량권'인 만큼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주목 ▲ 달리 말하면 '위험의 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재량권이 없다.].

2) 그래서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건축을 둘러싼 복잡다기한 이익의 충돌, 즉 개인의 재산권이나 일조권, 교통권, 주민 생활권 등의 침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이렇듯 오직 '위험의 방지'에 대해서만 재량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이는 곧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즉 '건축 허가를 재량 행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와 같다.

(나) 문단 3 2017년 대법원 판례

1) 이와 관련하여 2017년 대법원 행정기본법 제24조의 인허가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 허가의 경우 재량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재량권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

▶ 지문에서 다루는 '허가'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2017년 대법원'은 '인허가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 허가'에 대해서는 '재량 행위'라고 판단하는 입장이다. 즉 문단2-2)의 비판을 수용하는 입장인 것이다.

	판단 대상	행정 행위의 종류
학계의 통설	허가	기속 행위
2006년 대법원	건축 허가	재량 기속 행위
2017년 대법원	인허가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 허가	재량 행위

2) 여기서 **의제**란 본질이 다르지만 법규에서 다룰 때에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인허가를 받으면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인허가 의제**인 것이다.

▶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이다. 이어지는 예시를 활용하자.

3) 해당 판례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농림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정한 용도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건축 허가는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¹와 국토계획법상의 개발 행위 허가²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 '인허가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다. 건축법상의 건축 허가¹와 그에 관련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 행위 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허가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4) 그런데 개발 행위 허가의 경우 법규상 재량 행위여서 이때의 건축 허가 역시 재량 행위로 판단된다.

▶ '인허가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 허가'를 재량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핵심적인 근거다. 인허가 의제에 의해 함께 받았다고 보는 '개발 행위 허가'가 재량 행위이므로 '건축 허가' 또한 재량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나) 문단 4 복리 행정의 관점

1) 근래에는 건축 행위와 건축물은 인근 주민의 법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축 허가를 통해 건물주가 얻는 사익과 주민들이 침해받는 공익의 크기를 비교 형량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기관에 보다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 ▶ 이는 기본적으로 '2017년 대법원'과 입장을 같이한다.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재량 행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 행정 기관이 '건축을 둘러싼 복잡다기한 이익의 충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량권이 필요하다[문단2-2]. 건물주의 사익과 주민들이 겪는 피해인 공익의 충돌도 이에 속한다.
- ▶ 가령 사익에 비해 침해받는 공익의 크기가 크다면 이를 근거로 행정 기관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위험의 방지'가 아닌 다른 이유를 근거로 거부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재량권'에 해당한다.]

2) 이 견해는 건축 허가의 목적을 단순히 위험의 방지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복리 향상에 두는 **복리 행정**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 ▶ 이러한 관점이 바로 '복리 행정'의 관점이다. 위험의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질서 행정'의 관점과 구분된다[문단2-1].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갑은 농림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한 뒤, 그곳에 숙박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행정 기관 을에 개발 행위 허가와 건축 허가를 함께 신청하면서,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 ▶ 갑이 신청한 허가는 인허가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 건축 허가에 해당한다. '2017년 대법원에 따르면 이는 '재량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행정 행위에 해당한다(나)의 문단3-1). 개발 행위 허가가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함께 허가된 건축 허가 역시 재량 행위로 판단될 것이다.

2) 이에 을은 갑에게 개발 행위와 건축을 허가하면서, 갑이 건축법상의 위험 방지 요건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해당 건축이 주민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미비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1과 해당 지역에 10억 원의 발전 기금을 기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관2를 붙였다. 갑은 이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단, 건축 허가를 재량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부관2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부관'은 기속 행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가)의 문단4-3). 그렇다면 재량 행위의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될 것이다(가)의 문단4-2). 즉 '부관'의 경우는 '을의 행정 행위'를 무엇으로 판단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 ▶ 반면 '부관2'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미비한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속 행위'의 경우에는 덧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위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량 행위'의 경우에는 부관2가 재량권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만 한다.

∴ 만약에 법원이 '복리 행정의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을의 건축 허가를 재량 행위로 판단할 것이다. 재량 행위는 법적 근거 없이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가)의 문단4-2). 즉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에 비추어 부관2가 위법한지, 위법하지 않은지를 판단하지 그 과정에서 '비교 형량'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 비교 형량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닌 건축 허가를 내리는 행정 기관이다(나)의 문단4-1). 따라서 ㉞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

[10~13] 기술

스핀 통신 소자의 초고주파 신호 생성 원리

지문 평가

차세대 통신 기술의 원리를 하위 개념별로 하나씩 설명하는 전형적인 기술 지문이다. '스핀 전달 토크'와 '거대 자기 저항 효과'의 개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으므로, 각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핀 통신 소자'의 핵심을 파악해 보자.

Keyword

기술 - 통신 기술 - 스핀 전달 토크

스핀 통신 소자, 스핀트로닉스, 스핀, 스핀 전달 토크, 자성 금속, 비자성 금속, 거대 자기 저항 효과, 스핀 분극 전류, 자유 상태

문단 ① 스핀 통신 소자

1) 새로운 고성능 무선 통신 기법은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하며 발열량이 많아지는 결과도 낳는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력을 덜 쓰고 열도 덜 발생하는 차세대 통신 소자가 필요하다. 그러한 소자들 중 초고주파 대역의 통신 신호를 발생시키는 **스핀 통신 소자**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 ▶ 무선 통신 기법의 성능이 더 높아지는 만큼 필요한 전력과 그로 인한 발열량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 해결 방안으로 차세대 통신 소자 중 '스핀 통신 소자'를 화제로 던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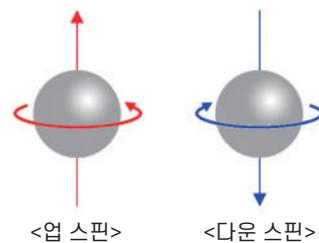
맥락 짚기 ▶ 이렇게 해결 방안으로서 어떤 기술이 주어지면, 해당 기술의 원리와 과정을 파악해야 한다.

2) 전자가 지닌 두 특성인 전하와 스핀 중 전하를 통해서만 기능을 제어하는 기술인 **일렉트로닉스**와 달리, **스핀트로닉스**는 스핀까지도 제어에 활용하므로 전력 소모와 발열이 적다.

- ▶ 스핀 통신 소자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전자의 '스핀'까지 제어하기 때문인데……

3) **스핀**이란 개별 전자가 지닌 양자 역학적인 물리량으로, 각운동량과 유사한 효과를 낳으며 업 스핀과 다운 스핀 중 하나의 방향을 지닌다.

- ▶ '스핀'은 전하와 더불어 전자가 갖는 물리량으로서, 전자는 스핀의 두 가지 방향 중 하나의 방향을 지닌다.



참고 ▶ '스핀'이라는 표현과 달리 전자 자체가 실제로 자전하는 것은 아니다. 각운동량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4) 스핀 통신 소자는 **스핀 전달 토크**라는 현상을 이용하는데, 이는 거대 자기 저항 효과의 반작용에 해당한다.

- ▶ 스핀 통신 소자는 '스핀 전달 토크'를 원리로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거대 자기 저항 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하는 흐름이다.

문단 2 거대 자기 저항 효과

1) 자기를 띠어서 자화 방향을 지닌 금속인 **자성 금속**을 FM, **비자성 금속**을 NM이라 할 때, FM1 | NM | FM2의 구조로 붙인 후 FM1에서 FM2 방향으로 전자들을 흘려보내다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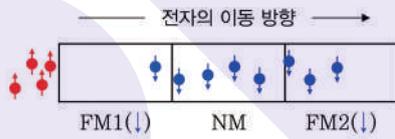
▶ 전자가 FM1과 NM을 거쳐 마지막으로 FM2를 지나게 되는 구조인데, 이때 개별 전자는 전하는 물론, 두 방향 중 하나의 스핀을 갖는다.

2) 자화 방향을 위 혹은 아래로만 설정할 때, FM1과 FM2의 자화 방향이 같아서 평행할 때에는 전류에 대한 저항이 그리 크지 않고, **자화 방향이 반대여서 평행하지 않을 때에는 저항이 상당히 큰, 거대 자기 저항 효과**가 나타난다. 보통의 전류에는 업 스핀과 다운 스핀의 전자들이 반씩 포함되어 있는데, **자화 방향과 일치하는 스핀 방향을 지닌 전자들은 FM을 잘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전자들은 자기의 영향으로 반사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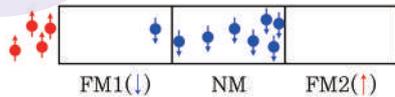
주목 ▲ 자화 방향을 위 혹은 아래로만 설정할 때, 스핀의 방향은 자화 방향과 일치하거나 또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자화 방향은 '업 스핀에 일치하는 방향'이거나 '다운 스핀에 일치하는 방향'이 된다.

▶ FM1과 FM2의 자화 방향이 같으면 평행하다. 가령 모두 '다운 스핀에 일치하는 방향'이라고 하자. 전자들을 흘려보내면 그중 절반은 '업 스핀'을, 절반은 '다운 스핀'을 지닐 것이다. 이때 FM1을 통과하는 전자들은 '다운 스핀'을 지닌 것들이다. '업 스핀'을 지닌 전자들은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되기 때문이다.

▶ 이렇게 FM1을 통과한 '다운 스핀'을 지닌 전자들은 FM2도 원활하게 통과한다. FM2의 자화 방향도 '다운 스핀에 일치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 반면 FM1과 FM2의 자화 방향이 다르면 평행하지 않다. FM2의 자화 방향은 '업 스핀에 일치하는 방향'이라면, 이번에는 FM1을 통과한 '다운 스핀'을 지닌 전자들이 FM2를 통과되지 못하고 반사된다.



3) FM1을 거친 전류는 특정 방향의 스핀을 지닌 전자들만으로 이루어진 **스핀 분극 전류**가 되고, 그 전류 속 전자들은 FM1과 자화 방향이 반대인 FM2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 '거대 자기 저항 효과'에 대한 요약적인 설명이다. 이때 FM1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특정 방향의 스핀을 지닌 전자들만 남은 것을 가리켜 '스핀 분극 전류'라 한다. 이때 '스핀 분극 전류'는 그와 일치하지 않는 자화 방향의 FM2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저항 →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지는 것이다.

문단 3 스핀 전달 토크

1) 이렇듯 거대 자기 저항 효과에서 자화 방향에 따라 스핀 분극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과는 반대로, **스핀 전달 토크**는 스핀 분극 전류를 통해 자화 방향을 바꾼다.

▶ '스핀 전달 토크'는 거대 자기 저항 효과의 반작용에 해당된다고 했다[문단 1-4]. 즉 거대 자기 저항 효과를 이해해야만 스핀 전달 토크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기존과 동일한 구조이되 FM2의 자화 방향이 FM1과는 반대이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바뀔 수 있는 **자유 상태**라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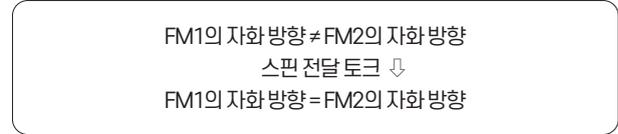
▶ 문단2와 기본적인 구조는 같되 FM2의 자화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스핀 분극 전류에 의해 자화 방향이 변화한다는 것과 밀접하다.

3) 동일하게 전자들을 흘려보내면 FM1을 통과하면서 스핀 분극 전류가 생성되고, 그 전류의 전자들은 스핀 방향이 FM2의 자화 방향과는 반대임에도 FM2가 자유 상태여서 반사되지 않고 통과된다.

▶ 원래대로 FM2의 자화 방향이 고정되어 있으면 스핀 분극 전류와 자화 방향이 일치하지 않아서 전자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반사된다 → 거대 자기 저항 효과. 반면 FM2가 '자유 상태'일 때는 FM2를 통과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다.

4) 그 대신 자신과 방향이 반대인 자화 방향에 대해 각운동량과 같이 회전을 일으키는 **스핀 전달 토크**를 유발하여 FM2의 자화 방향을 바꾼다.

▶ 애초에 FM2의 자화 방향은 FM1과는 달랐다. 이 상태에서 '자화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것은 FM2의 자화 방향이 FM1과 같아지도록 바뀐을 의미한다.



▶ 결국 동일한 스핀을 지닌 스핀 분극 전류가 반사되지 않고 FM2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FM2의 자화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참고 ▼ 자화 방향이 다른 FM2를 통과한 전자들은, FM2의 자화 방향이 FM1과 평행하게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의 자화 방향에 일치하도록 스핀의 방향이 바뀐다. 위의 경우에는 FM2를 통과하면서 자신은 업 스핀으로 바뀌고, 반작용으로 FM2의 자화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다.

5) 자유 상태의 FM2에 보통의 전류가 흘렀다면 두 스핀이 미치는 힘이 서로 상쇄되어 자화 방향을 바꾸지 못했을 것이다.

▶ FM1에서 스핀이 한쪽 방향으로 동일한 전류 → 스핀 분극 전류가 만들어져야만 FM2에서 스핀 전달 토크가 일어날 수 있다.

문단 4 스핀 통신 소자의 주파수

1) 스핀 통신 소자는 FM2에 자기장을 가하여 자화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한다. 전류를 흘려 스핀 전달 토크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해당 전류의 세기에 잘 부합하는 특정 세기의 자기장을 가하여 자화 방향이 다시 반대 방향을 띠도록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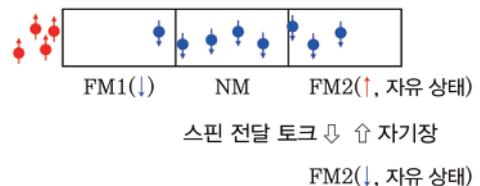
맥락 짚기 ▲ 지금까지 설명한 스핀 전달 토크의 원리를 바탕으로 스핀 통신 소자가 어떻게 '초고주파 신호를 생성'하는지에 주안점을 두자[문단 1-1].

▶ 스핀 전달 토크에 의해 FM2의 자화 방향이 'FM1과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이어서 FM2에 적절한 자기장을 가하면 FM2의 자화 방향이 다시 'FM1과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2) 그러면 FM2의 자화 방향은 스핀 전달 토크와 자기장의 영향을 계속 받으며 한 방향으로 고정되지 않고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일정한 주파수로 회전한다.

▶ 이후 FM1을 통과하여 만들어진 스핀 분극 전류에 의해 다시 스핀 전달 토크가 유발되어 'FM1과 같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문단 3-4].

▶ 결국 '스핀 전달 토크'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장'에 의하여 자유 상태인 FM2의 자화 방향은 계속해서 바뀌게 된다. '일정한 주파수로 회전'하게 되는 것이다.



3) 그 회전 속도는 1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단위인 나노를 적용할 때, 나노초 수준으로 매우 빨라서 수 GHz(기가헤르츠)에서부터 수십 GHz의 초고주파 신호 생성에 이용될 수 있다.

▶ 이렇게 자화 방향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초고주파 신호를 얻을 수 있다[문단1-1]. 이것이 '스핀 통신 소자'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4) 이 소자는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 변화를 통한 주파수 가변도 용이하다.

▶ 애초에 FM2의 자화 방향은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여 일정한 주파수로 회전하게 된다. 만약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를 줄이면 주파수도 낮아질 것이다.

전류, 자기장의 세기! ⇨ 자화방향의 회전! ⇨ 주파수!

<보기> 분석

<보기> 문단

1) 나노 크기의 '마이크로파 발진기'는 '스핀 통신 소자'를 집적한 것의 하나로, 그 속의 개별 소자들은 비자성 금속 X를 사이에 두고 그 위에 자유 상태인 금속 A가 놓이고, 그 아래에 자화 방향이 고정되어 있는 금속 B가 놓인 구조를 띤다.

▶ 지문의 'FM1 | NM | FM2'가 세로로 놓인 셈이다. 'B | X | A'로 대응 관계를 표기할 수 있으며, '자유 상태인 금속 A는 FM2에 대응한다.'

2) 이 소자의 B쪽 하단에서 A쪽으로 전자들을 흘려보내기 전에 A의 자화 방향과 B의 자화 방향은 모두 전자의 다운 스핀에 일치하는 방향을 띠고 있다.

▶ B를 지나는 과정에서 다운 스핀을 지닌 전자들만 남은 스핀 분극 전류가 생성된다. 다만 스핀 분극 전류가 그대로 A를 통과할 것이다. A의 자화 방향이 B와 동일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핀 전달 토크가 유발되지도 않고, 초고주파 신호도 생성되지 않을 것이다.

∴ @번 선지가 적절하다. 스핀 전달 토크가 유발되려면 A의 자화 방향이 B의 자화 방향과 달라야 하므로[문단3-4], A의 자화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자기장'을 먼저 가해야만 한다.

3) 이 발진기를 사용하여 10GHz의 신호를 생성한 후 3GHz의 신호를 생성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

▶ 그렇게 생성한 '초고주파 신호'의 주파수는 10GHz인데, 주파수를 3GHz 낮추야 한다[문단4-1] → 주파수 가변 전류와 자기장의 세기를 낮춰야 한다[문단4-4].

[14~17] 인문

정언 삼단 논증의 타당성 검사

지문 평가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면 헤매기 쉬운 지문이다. '정언 문장', '타당한 논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전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범한 '존재 가정'의 오류가 왜 문제가 되는지 '술어 논리'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Keyword

인문 - 논리학 - 정언 삼단 논증

정언 문장, 정언 삼단 논증, 아리스토텔레스, 술어 논리,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 존재 가정, 프레게

문단 1 정언 삼단 논증

1) "모든 동물은 죽는다."와 같이 '동물' 집합, '죽는 것' 집합 등 집합들 간의 관계를 주장하는 문장을 정언 문장이라 한다.

▶ '정언 문장'에 대한 정의다. 해당 정의를 통해 문장의 '동물', '죽는다'가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합'을 가리킨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한다. 즉 '모든 동물'이 아니라 '동물' 그 자체가 집합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2) 또한 "모든 동물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이 두 정언 문장을 전제로 삼아 하나의 정언 문장을 연역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정언 삼단 논증이라 한다. 연역적으로 추론한다는 것은 전제들이 참일 때에 결론이 반드시 참임을 뜻하며, 실제로 전제들의 참이 결론의 참을 절대적으로 보장한다면 그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다.

▶ '정언 삼단 논증'은 두 전제와 하나의 결론이 모두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지며, 두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논리 구조이다.

▶ 그리고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실제로' 연역적으로 추론되면 그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된다.

문단 2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

1) 정언 삼단 논증의 타당성 검사 방법을 최초로 연구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 정언 삼단 논증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관련해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살펴보기 전에……

2) 그런데 정언 문장에서 문법적 주어나 문법적 술어(= 문장에서 주어의 움직임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하는 말)가 모두 논리적으로는 술어에 해당한다고 보는 현대의 술어 논리에 따르면, 정언 문장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에는 오류가 있다.

▶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반박하는 견해가 먼저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술어 논리'의 입장을 구분하면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 '술어 논리'는 문법적 주어[→ 가령 '동물']도 술어라고 본다. 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문법적 주어는 술어가 아니라고 봤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정언 문장은 전칭 긍정(A)인 "모든 S는 P이다.", 전칭 부정(E)인 "어떤 S도 P가 아니다."[→ 모든 S는 P가 아니다.], 특칭 긍정(I)인 "어떤 S는 P이다.", 특칭 부정(O)인 "어떤 S는 P가 아니다."로 구분된다.

➡ 각각을 구분하여 정리하자. 여기서 S는 문법적 주어, P는 문법적 술어를 가리킨다.

A	모든 S는 P이다.	E	어떤 S도 P가 아니다.
I	어떤 S는 P이다.	O	어떤 S는 P가 아니다.

4) 아리스토텔레스는 A의 의미가 I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여겼다. A로부터 I가 연역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된다고 본 것이다.

- ➡ 전제를 A로, 결론을 I로 하는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타당한 논증'이다.
- ➡ '타당한 논증'의 판단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를 파악해야만 '술어 논리'가 어떤 근거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비판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당한 논증 : 전제의 의미에 결론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5) 하지만 이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존재 가정'의 오류를 아리스토텔레스도 범한 탓이다.

- ➡ '술어 논리'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는 곧 '존재 가정'의 오류에 해당한다.

문단 3 존재 가정의 오류

1) 우리는 정언 문장을 말할 때 'S인 것이 있다.', 또는 'P인 것이 있다.'와 같은 '존재 가정'을 하곤 한다.

- ➡ 가령 '어떤 S는 P이다.'를 말할 때에는 '어떤 S가 실제로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법적 주어(S), 문법적 술어(P)에 해당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바로 '존재 가정'이다.
- ➡ S, P는 집합이므로 'S인 것이 있다.'는 '집합 S에 포함된 원소가 존재한다.'를, 'P인 것이 있다.'는 '집합 P에 포함된 원소가 존재한다.'를 의미한다.

2) '존재 가정'에 따라 S와 P가 모두 세계에 존재하는 경우만을 생각한다면 A의 의미는 I의 의미를 포함한다. 하지만 일각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모든 일각수는 머리에 뿔이 달린 말이다."라는 문장이 의미가 있고 참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생각한다면, '존재 가정'은 오류이다.

- ➡ '술어 논리'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 가정'의 오류를 범하였기 때문에, A로부터 I가 연역적으로 타당하게 추론된다고 본 것이다[→ 전제인 A의 의미가 결론인 I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본 것이다].
- ➡ 그런데 A는 '존재 가정' 없이도 성립한다. 따라서 A를 말할 때[→ A를 참인 전제로 삼아 논증할 때] '존재 가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

3) 또한 S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A는 항상 참이 된다. A는 "집합 S가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의미인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이다.

- 주목** ▲ 정언 문장의 문법적 주어, 문법적 술어는 결국 '집합'에 해당한다는 점 잊지 말자[문단-1].
- ➡ 이렇듯 '술어 논리'의 주장대로 '존재 가정'이 배제되면 A를 말할 때 문법적 주어인 S는 세계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그리고 'S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A가 반드시 참이다. 집합 S에 '어떤' 원소도 없으면 집합 S는 공집합인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이다. 집합 P가 무엇이든지 간에 집합 S는 항상 집합 P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다[→ A는 항상 참이 되는 것이다].

4) 그리고 이 경우에 S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I는 거짓이므로, 결국 A로부터 I가 타당하게 추론된다고 말할 수 없다.

- ➡ S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면 I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 집합 S에 어떤 원소도 없으면 '어떤 S는 P이다.'도 당연히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 '존재 가정' 없이는[→ '존재 가정'의 오류를 배제하면] A로부터 I가 타당하게 추론될 수 없다. 요컨대 '술어 논리'에 따르면 A로부터 I가 추론된다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는 '존재 가정'의 오류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다.

존재 가정 $\times \Leftrightarrow$ A는 참이나 I는 거짓일 수 있음
 \Leftrightarrow 전제인 A의 의미에 결론인 I의 의미가 포함 $\times \Leftrightarrow$ 타당성 \times

문단 4 술어 논리에 따른 A와 I의 의미

1) 술어 논리를 개발한 **프레게**에 따르면, A를 논리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것은 "모든 x에 대하여, 만약 x가 S라면 x는 P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여기서 S와 P는 분명히 집합을 지칭하는 술어이다. 따라서 A는 "'집합 S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다." 즉 "'집합 S'와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 ➡ '술어 논리'에 따라 분석한 A의 의미이다. 정언 문장의 S, P는 집합에 해당하며[문단-1], '술어 논리'에서는 S, P를 술어라고 본다[문단-2].
- ➡ 문단3-3)의 "집합 S가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다."는 결국 '술어 논리'에서 이해한 A의 의미이다. 집합 S가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라면, S의 원소이면 무조건 P의 원소여야 하기 때문이다[→ '집합 S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다.]

'집합 S의 원소'이면서 '집합 P의 원소가 아닌 것'은 없다.
 = '집합 S'와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 '집합 S'가 '집합 P'의 부분 집합이다.

2) 이는 A가 집합 S와 집합 P가 공집합이 아니라[→ S인 것, P인 것이 있다는] '존재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

- ➡ 이렇게 A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알 수 있듯이, A에는 S, P의 존재 가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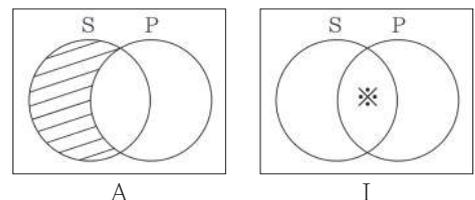
3) 한편 술어 논리에 따르면, I는 "x가 S이고 x가 P인 그러한 x가 존재한다."라는 존재 문장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다시 "'집합 S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P의 원소'인 것이 있다.", 즉 "'집합 S'와 '집합 P'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를 의미한다.

- ➡ 이번에는 술어 논리가 분석한 I의 의미다.

'집합 S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집합 P의 원소인 것'이 있다.
 = '집합 S'와 '집합 P'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문단 5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타당성 판단

1) <그림>은 A와 I의 의미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빗금친 해당 영역에 원소가 없음을 뜻하며 '※' 표시는 해당 영역에 원소가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아무런 표시가 없으면 이는 해당 영역에 원소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 ➡ A부터 확인하자. '집합 S'와 '집합 P의 여집합'의 교집합에 빗금이 그어짐을 알 수 있다.

▶ 빗금을 그은 영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는다(→ 해당 영역에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S인 것, P인 것이 존재한다는 '존재 가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이번에는 I를 확인하자. 집합 S와 집합 P의 교집합에 '※' 표시가 있다. 이는 해당 영역에 하나 이상의 원소가 있다는 뜻이다(→ 공집합이 아니라는 뜻이다.)

▶ '※' 표시를 이유로 I에 대해서 존재 가정의 오류를 범하였다고 생각했다면 잘못된 이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A가 S인 것, P인 것이 있다고 말하는 문장이 아님에도 S인 것, P인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존재 가정'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반면 I는 그 자체로 'S이면서 P인 것'이 하나는 있다고 말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문단4-3).

주목 ▲ I는 S인 것, P인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 가정'의 오류와는 관련이 없다.

2) A의 표기를 보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타당성을 따져 보는 방법은 '존재 가정'을 하지 않는 술어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A의 의미가 I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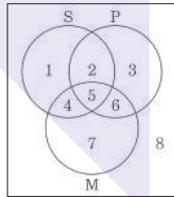
▶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A의 의미에 I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 포함되어야만 '타당한 논증'이다.] A로부터 I가 연역적으로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는 틀렸음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존재 가정' 없이는 A로부터 I가 타당하게 추론될 수 없다.

참고 ▼ 만약 A의 의미를 나타낸 벤 다이어그램에서 집합 S와 집합 P의 교집합 영역에 '※' 표시가 있었다면 I의 의미가 담기게 된다. 이 경우에는 A로부터 I가 타당하게 추론된다. 이것이 곧 '존재 가정'이다(문단3-2).

<보기> 분석

<보기> 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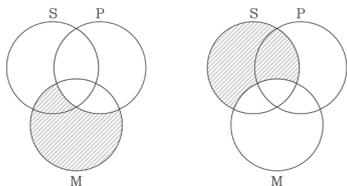
1) ㉗ “모든 M은 P이다. 모든 S는 M이다. 따라서 어떤 S는 P이다.”라는 정언 삼단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해에 따르면 타당한 것이지만, 벤 다이어그램을 동원하여 타당성을 검사해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다.



▶ 문단에서는 두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추론되는 '정언 삼단 논증'을 다루었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의 전제인 A로부터 하나의 결론인 I가 추론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사만을 다루었다. 그런데 <보기>의 상황에서는 다시 두 전제로부터 하나의 결론이 도출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다루고 있다.

2)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타당성 검사 방법은 두 전제의 의미를 표기했을 때 그곳에 이미 결론의 의미가 담겨 있으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림에서 1~8은 각 영역을 지칭한다.

▶ 두 전제의 의미를 표기해 보면 결론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어떤 S는 P이다.'의 의미가 담기려면 2, 5 중 어딘가에는 '※' 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언 삼단 논증 ㉗는 타당한 논증이 아니다.



∴ 결론을 '모든 S는 P이다.'로 교체해 보자. 새로운 결론의 의미가 담기려면 1, 4에 빗금이 있어야 한다. 위의 벤 다이어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1, 4에 빗금이 있어서 '새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된다. 따라서 ㉗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22~27] 현대시

(가) 「길」

- 신경림 -

작품 평가

이 시의 제목이자 제재인 '길'은 물리적인 공간에 그치지 않고 사람이 나아갈 방향 내지는 인생길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화자가 생각하는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토막 ①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 '길'을 의인화하여 의지를 지닌 주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자.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길'은 그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화자는 말하고 있다.

토막 ②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일부러의방언')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 '길'은 때론 위험한 곳으로 뻗어 있기도 하고 중간에 끊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길'의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토막 ③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 여기까지의 시상을 정리하면, '길'은 사람들에게 난관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친다는 말이다.

토막 ④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 토막4는 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토막3의 '세상 사는/슬기를 가르치는 거'에 이어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시구가 제시되는 한편, '밖으로 불러내어'라는 시구는 토막5의 '안으로 끌고 들어'와 연결하고 있다. '길'의 뜻이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것이다.

토막 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슬기와 이치를 가르치는 것]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 드디어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화자의 견해가 드러난다. 화자는 '길'이 사람들로 하여금 밖으로 향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즉 내면으로 향하게 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토막 6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서[→ 순탄해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도[→ 안식과 위로를 주기도] 한다

▶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색과 성찰을 위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 앞선 사람들의 발자취를 걸으며 자신이 걷고 있는 길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 밖으로 나 있는 길이 아닌 내면의 길을 찾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사람들은 자신들이 '길'을 만든 것이라 생각하고,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세상사를 가르쳐 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화자는 '길'은 밖이 아니라 내면을 성찰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며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순탄하게 열리고 기쁨이나 위로를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토막 7

그것을 알고 나서야 사람들은 비로소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

▶ 삶에서 내적인 성찰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겸손해진다는 의미이다.



[22~27] 현대소설

(다) 「가객」

— 황석영 —

수록 지문 평가

예술의 완성을 위한 예술가의 고뇌와 노력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주변 인물과의 관계보다는, 주인공인 예술가 '수추'의 내면 심리에 독해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주인공의 예술관이 어떤 변화를 맞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계기가 무엇인지에 주목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추한 외모로 인해 저지에서 쫓겨난 가객(= 시조 따위를 잘 짓거나 창(창)을 잘하는 사람을 이르던 말) 수추는, 강 건너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내며 노래를 부른다.

▶ 인물 간의 관계가 따로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품의 초점이 주인공 '수추'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짐작 가능하다. 수추가 노래하는 가객이라는 점, 외모가 추해 쫓겨났다는 점에 주목하자.

토막 1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수추

어느 날 그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 흰한 대낮에 혼자서 노래를 불렀다. 그의 노래가 이제 막 거문고의 가락에 얹히려는 참에 줄이 탁 끊어졌다. 이 끊긴 줄이 울어 대는 무참한 소리가 그의 노래를 산산이 으스러뜨리고 말았으며, 그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거문고를 계단 위에 내동댕이치고 말았다.[→ 노래를 망친 데 대한 분노] 자르릉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악기가 부서지고 그의 노래마저 함께 부서져 버렸다. 그의 발밑에는 살해된 가락의 시체[→ 망쳐 버린 노래와 부서진 거문고를 비유한 표현]만이 즐비하게 널려 있을 뿐이었다. 그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다[→ 불완전한 예술을 용납하지 못하는 심리].

▶ 주인공 수추의 인물형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혼자 노래하는 것으로 보아, 수추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예술 그 자체를 추구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거문고 줄이 끊어져 노래를 망치자, 수추는 아예 악기를 부서뜨리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못한다. 이를 통해 그가 완전한 경지의 예술에 강박적으로 몰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고독하게 예술에 몰두하는 주인공은 「무명탑」, 「광염 소나타」, 「서편제」 등 우리 소설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인물형으로, 대개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의 내면 심리에 초점을 맞춘다.

토막 2 과거를 반성한 수추의 새로운 깨달음

수추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 가운데서 진실로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다. 그는 노래로부터 놓여난 것이다.[→ 지금껏 예술이 수추를 구속해 왔음을 암시] 수추는 파괴된 악기와 버려진 노래를 회상할 뿐이었다. 수추는 이 죽음과 같은 휴식 안에서 비로소 노래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미워했던 제 모습이 이제는 변화된 것을 알았다.[→ 예술에만 집착했던 자신에 대한 깨달음]

그가 물을 마시려고 시냇물에 구부렸을 적에 수추는 환희의 얼굴 [→ 수추의 달라진 모습]을 만났다. 그의 눈은 삶의 경이로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입은 웃고 있었고, 뺨에는 땀이 구슬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는 모든 산 것들이 그러하듯 이 만물의 소멸에 대하여 겸손하였다. 그가 자신을 추악하게 본 것은 그 마음이 자기를 자만하였기 때문이었다.[→ 스스로를 긍정하게 된 수추] 그의 노래는 그의 생처럼 절대로 완전

함에 도달하지 않는 것[→ 예술의 불완전함에 대한 자각]이었다. 남이 자기를 보고 까닭 없이 미워함을 두려워하기 전에, 수추는 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쁜 마음을 일으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도록 다시 살아야 함을 느꼈다.[→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 수추는 거문고를 망가뜨린 일을 계기로 오히려 예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다. 과거의 수추는 자기를 지만하는 동시에 추악하게 보았다. 이는 그가 노래만을 사랑하면서도 결코 완전한 노래를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술의 불완전함을 자각하게 되자, 수추는 인간의 불완전한 삶을 오히려 긍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를 긍정하며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중략)

토막 3 달라진 수추의 예술에 감화되는 사람들

수추는 제 추했던 얼굴을 이제는 모두 잊었다. 물 위에 떠오른 제 모습이 자기가 아니라던 헛된 생각은 모두 사그라진 것이다.[→ 자신의 본모습에 대한 긍정]

그의 눈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를 닮은 사랑스럽고 겸손한 사람들로 비쳐졌다. 나아가서는 수추 자신이 그 사람들을 닮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신과 타인을 긍정하게 된 수추] 저자에서 예전의 수추를 기억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저자 사람들은 아침에 그가 경쾌한 걸음걸이로 가게 앞을 지나는 모습을 대하면 문득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그의 노래를 듣노라면 기쁨이 가득 찬다고 말을 했다. 강변 나루터에 가면 언제나 그의 콧노래라든가 휘파람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는 짐을 부리면서 내내 저 자신에게 들려나 주듯 흥얼거리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곡조를 배워 모두들 따라서 부르게 되었다.[→ 달라진 수추의 예술에 감화되는 사람들]

▶ 수추가 자신의 본모습과 함께 타인도 긍정하게 되자 예전에 수추를 쫓아냈던 사람들도 더 이상 그의 추한 외모를 의식하지 않는다. 수추의 콧노래나 휘파람 소리에 사람들이 감화되는 것은, 수추가 토막2에서 새롭게 깨달았던 삶의 의미를 실천하고 있음을 뜻한다.

토막 4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 악기를 얻는 수추

다시 봄이 찾아와[→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 이 강변 저자에 죽은 것들이 소생하고, 새들은 찾아와서 목청을 다투어 울고, 나도 겨우 눈보라와 강추위에서 살아나 빨빨거리며 장터를 헤집고 다닐 철이 되었다.[→ 어렵게 살아가는 서술자 '나의 처지']

저자에서 거리 잔치가 벌어지는 날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은 모두 오색등을 꺼내어 손질을 하고, 음식을 장만했으며 색실과 대나무를 준비하였다. 그들은 행복한 잔치를 대비하느라고 부산한 중에 문득 수추의 노래를 생각해 냈다.

“그렇게 훌륭한 노래를 부르는 이가 있는 것을 몰랐구나.”

“하나 그에게 악기가 없다는 건 좀 흠이란 말야.”

“그가 노래를 해 주면 우리 잔치가 더욱 복될 터인데.”

“악기를 마련해 주자. 그의 노래가 더욱 빛나도록.”

이러한 의논들이 되어 장터의 여러 사람들이 다리 아래로 찾아와 악기를 마련해 줄 터이니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떠들었다. 수추는 여러 번이나 사양을 하다가 권유에 못 이기어 드디어 다리 위에 늘어진 오동나무를 가리켜 보였다.

“저 나무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이걸 생각보다도 쉬운 청이라고 여러 입으로 말들 하였다. 곧 살집 좋은 일꾼들에 의하여 나무가 베어졌고, 수추는 그날부터 망치와 끌을 들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불에 그슬리기도 하고, 오줌독에 담그기도 하고, 바람에 말리고, 땀병에 죄었다. [→ 수추가 악기 제작에 쏟는 정성] 여러 날 만에 수추는 전에 그가 등판에 엮 비슷이 메고 왔던 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거문고를 만들었다.

그가 시험 삼아 줄을 통통 튕겨 내니까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져 폭우가 되고 벽력이 치면서 강줄기로 합치고 폭포가 되어 무한히 큰 물의 출렁거리는 소리로 변하는 것[→ 깨달음을 얻은 후 더욱 원숙해진 수추의 예술 세계]이었다. 거리 잔치 하는 날, 수추는 그 새로운 악기를 들고 저자의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다. 수추의 노래와 거문고 소리를 들으려고 먼 지방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자는 도회가 되어 버렸다. 아픈 사람들이나 슬픔에 겨운 사람들이 수추의 고통을 씻어 주는 노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며칠을 걸어서 저자에 이르렀다.[→ 수추의 예술에서 위로를 얻는 사람들]

수추는 사람들의 구름 속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흘러 보냈다. 그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고 힘을 솟구치게 해서 살아 있는 환희 [→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추의 예술을 형상화]를 갖도록 했다. 노래하는 그의 얼굴은 사람들에게 무언지 모를 믿음을 전파시켜 주는 것이었다.

▶ 사람들은 어느새 수추의 노래를 행복과 연결 짓고, 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추에게 새 악기를 마련해 주기로 한다. 이에 오랫동안 악기 없이 노래했던 수추는 정성을 들여 새 악기를 제작하고, 수추의 음악은 과거보다 더욱 원숙한 예술 세계를 담아낸다.

▶ 과거 수추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예술 그 자체를 추구했으나, 그 결과물은 타인은 물론 수추 본인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시간이 흘러 깨달음을 얻은 수추의 예술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는 독단에서 벗어나 민중을 향하는 예술의 힘과 의미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